

## 외국문학(外國文學) 전공(專攻)의 변(辨)

### 1

내가 아직 중학교 1학년 때 병으로 한 1개월가량 학교를 쉬던 일이 있었는데, 그때 나의 무료를 위로하려 하였음인지 먼 촌간 아저씨가 <능라도>라는 신소설을 한 권 갖다 주어서 읽었다. 이것이 시초가 되어 소설이나 시 읽기가 밥 먹기보다도 좋아졌다. 그래서 중학 2학년 때, 나는 장래 문학을 전공하리라는 결심을 하였다. 아니 결심이라기보다도 이 세상에서 문학보다 더 고귀한 학문이 없고, 또 나는 이 학문을 하기 위해서만 이 세상에 태어나온 것같이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또 「문학」 할 때에 무엇보다도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것은 영문학으로, 그때 나에게 있어서 문학이라면 곧 영문학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그때에 내가 배우는 외국어가 영어이었기 때문이었으리라. 그 후로 대학에 가서 영문학과에 적을 들 때까지 나는 단 한 번도 영문학 이외의 학과를 전공하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없다. 이려고 보니 영문학과 나와는 무슨 숙명적 인연이 있었는가도 싶다.

흔히 영문학을 상식적인 문학이라고 하고 그곳에 영문학의 단점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나는 이것은 단지 영문학의 감상자의 입장에서 볼 때요, 영문학의 연구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점에 도리어 영문학의 최대의 장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나는 「상식적인 문학」이란 말을 「중정(中正)을 얻은 문학」이란 말로 바꾼다. 우리가 외국문학을 연구해 온 것은 그 나라 문학에 투영된 그 나라의 문화와 민족을 이해하는 데도 있겠으나, 무엇보다도 그 나라 문학의 특질과 발전상을 자기 나라 문단에다 소개하고, 또 그 연구를 통하여 얻은 지식으로 자기 나라 문학을 반성하고 비판하여서, 자기 나라 문학의 발전에 폐익(裨益)하자는 데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외국문단에서 어떠한 영향을 받을 때에, 그 가장 진실한 그리고 영속적 영향은 그 나라의 전통적인 문학과 중정을 얻은 문학에서 온다. 그리고 구주문단에서 가장 그 전통에서 일탈함이 적고 중정을 잃지 않은 문학은 영국문학이다. 그러므로 나는 동경문단 명치 연대에 오로지 영문학의 영향 밑에 자라난 것은 여간만 다행한 일이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이런 점에서 보아 우리 문단은, 더욱이 전통이 확립되지 못한 우리 문단은 그 건전한 발달을 위하여 영국문학에서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은 영양분을 취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 작가요」 하고 내세울 수 있을 만큼 어떠한 작가를 골똘히 연구해 오지는 못했다. 지금까지 나의 연구는 말하자면 이 작가 저 작가, 이 작품 저 작품으로 뛰어다니는 낭만적 연구였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좀 더

계통을 세워 본격적으로 연구를 시작해 볼 작정이다. 그런데 외국문학을 연구하려면 그 나라 어학에 대한 충분한 해득이 선결조건이겠으므로, 요사이는 본격적 영문학 연구의 기초 공작으로 영문학보다도 영어학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 이 기초 공작이 어느 정도로 진보되면 제일 먼저 셰익스피어를 시작하여 일생을 두고 늘어져 볼 작정이다.

4

영문학이 우리 문단에 끼친 영향은 주로 시와 평론 방면일까 한다. 시에 있어서는 키츠, 셸리, 바이런 등 주로 낭만파 시인들의 작품이 우리 시인들에게 유형무형의 영향을 많이 끼쳤다.

그리고 평론에 있어서는 모더니스트 평론가들이 우리 문단의 몇몇 분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듯하다. 또 조이스의 심리주의 소설의 영향도 찾으려면 찾을 수 있을 줄 안다. 그런데 영국문학 중에서도 가장 상식적인 그러나 중정을 얻은 소설문학의 영향을 별로 우리 문단에서 찾을 수 없는 것은 서운한 일이다. 디킨즈나, 킹즐리나, 베네트나, 폴즈워드 같은 작가를 좀 더 돌아보아도 우리에게 손실은 없을 것이다. 영문학이 우리에게 기여한 점은 2에서 미리 언급한 바로 알 수 있을 줄 안다. 다시 한마디로 말하면 영문학의 연구는 우리에게 문학의 상도(常道)를 지시하여 줄 것이다.

5

일생을 붙들고 늘어지기로 한 셰익스피어이므로 누구의 작품보다도 먼저 그의 전 작품에 조선 옷을 입혀 놓아야 시원할 것 같다. 설혹 조선

옷으로 갈아 입히더라도 셰익스피어의 작품만은 누구에게나 다, 그리고 언제까지고 위안과 환희와 용기를 부어 줄 것이다.

《동아일보》, 1939. 11. 19)